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종합3보)

송고시간 2019-05-26 06:55

이도연 기자

"위대한 배우들이 이룬 성과"
송강호 "대한민국 모든 배우한테 영광 바친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은 봉준호 감독
[EPA=연합뉴스]

(칸[프랑스]=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올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 역사상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은 사람은 봉 감독이 처음이다.

1122회 로또당첨결과 3 6 21 30 34 35 +

핫뉴스

伊서 급류에 갇힌 세친구 휩쓸리기 직전 '마지막 포옹'

배우 박상민 또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수치

트럼프 옹호 열변 아빠 뒤에서 혀 낼름...'신스틸러' 된 6세 꼬마

'고속도로에서 날리는 지폐'...주우려는 운전자들로 소동

러 국방부 앞에서 징집군 아내들 무릎 시위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불법 도박트 운영까지 가담

익명 기부자,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립기100억원 쾌척

중식당 주방장, 동료 직원에 뜨거운 짬물 끼얹어 화상

원하는 배움으로 데려다 줄게

봉준호 '기생충',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순간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한국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네치아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기는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네치아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칸영화제 본상 수상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각본상) 이후 9년 만이다.

봉 감독의 '기생충'은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쿠엔틴 타란티노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장 피에르·뤼크 다르덴의 '영 아메드',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페인 앤 글로리', 셀린 시아마의 '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이어'등 21개 작품 가운데 최고상을 받았다.

오늘만 이 가격!
한정특가 품절 전 구경하세요
GS SHOP

봉 감독은 이날 무대 위에 올라 "언제나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영감을 받았다"며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놀라운 모험이었다. 그 작업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저와 함께해준 아티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배우들이 없었다면 한 장면도 찍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배우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종합3보)

GS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최대 300M
포인트 적립!
자립과 공존의
혁신교육 10년!
모든정책을 학교중심으로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coway
코웨이 아이콘정수기
LG
LG×GUGGENHEIM
AWARD 2024
LOTTE CASTLE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하천가서 목줄 안한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 숨져

'고속도로에서 날리는 지폐'...주의는 운전자들로 소동

伊서 급류에 갇힌 세친구 휩쓸리 직전 '마지막 포옹'

배우 박상민 또 음주운전 적발...취소 수치

최목사 청탁 이후 전화한 대통령 직원 "서초동 연락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coupang 로켓배송 상품, 오늘주문! 내일

그는 "영화감독을 꿈꾸던 어리숙한 12살 소년이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만지게 된다니...."라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봉 감독은 "이 자리에 함께해준 가장 위대한 배우이자 저의 동반자 송강호의 소감을 듣고 싶다"며 자리를 내줬다. 무대에 오른 송강호는 "인내심과 슬기로움, 열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께 이 영광을 바치겠다"고 영광을 돌렸다.

봉 감독은 이어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평소에는 사실적인 영화를 찍으려 했는데 지금은 판타지 영화와 비슷한 느낌이다"고 웃었다.

봉 감독은 2006년 '괴물'로 감독주간에 초청되면서 칸 영화제와 인연을 맺었다. 2008년과 2009년 '도쿄!'와 '마더'가 각각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 2017년 넷플릭스 영화 '옥자'로 경쟁부문에 데뷔했고, '기생충'으로 두 번째로 경쟁부문에 진출해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은 봉준호 감독
[EPA=연합뉴스]

'기생충' 황금종려상 선정은 심사위원 만장일치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은 시상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생충'에 대해 "재밌고 유머러스하며 따뜻한 영화"라고 평했다.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종합3보)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영상] "우릴 풀어달라" 영상 호소 이스엘 노인 인질 전원 사망 확인

뉴스

전공의들 "안 돌아가겠다"...인기과고연차 전공의는 '눈치게임'

군, 남북 접경지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 한다

北은 오물풍선 조건부 중단·南은 확성기 준비...아슬아슬

비밀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노르웨이 드릴과 시추선 계약

尹대통령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 등 아프리카와 지속가

그는 전반적인 수상작 선정에 대해 "우리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는다. 감독이 누구이고 어느 나라 영화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며 "영화 그 자체로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칸 영화제는 지난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에 이어 올해 '기생충'에 황금종려상을 안김으로써 2년 연속 아시아 영화에 최고상을 줬다.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박사장네 고액 과외 선생이 되면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다루는 블랙 코미디다.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 이야기를 통해 보편적 현상인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룬다.

봉준호 "강호 형이 꽉 껴안는데…실감 안 났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한편 이날 심사위원대상은 흑인 여성 감독으로는 최초로 상을 받은 마티 디옵('아틀란틱스')에게 돌아갔으며, 심사위원상은 라즈 리('레 미제라블'), 클레버 멘돈사 필로('바쿠라우')가 공동 수상했다. 남우주연상은 안토니오 반데라스('페인 앤 글로리'), 여우주연상은 에밀리 비샴('리틀 조'), 감독상은 장 피에르·뤼크 다르덴('영 아메드'), 각본상은 셀린 시아마('포트레이트 오브 어 레이디 온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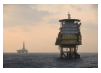
봉준호 '기생충', 한국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종합3보)

오래 머문 뉴스

전공의들 "안 돌아가겠다 인기과·고연차 전공의는 ' 치게임'

한국, 명실상부 '산유국' 도 나…에너지 자립 넘어 수 가능성도

최목사 청탁 이후 전화한 통령실 직원 "서초동 연락 았다"


비밀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노르웨이 시드릴과 선 계약(종합)

伊서 급류에 갇힌 세친구 쓸리기 직전 '마지막 포옹